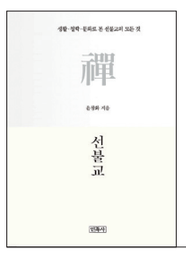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3~11/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법정스님이세상에남긴맑고향기로운이야기: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특별판	법정/김계윤 그림	불교신문사	6	자애:성냄과여러위험에서자신과타인을보호하는법(법의향기다섯)	일창 담마간다 편역	불방일
2	에리히프롬과불교(대원불교학술총서04)존재양식과깨달음	박찬국	운주사	7	샐러드가필요한모든순간나만의드레싱이빛나는순간(개정판)	지은경 지음	레시피팩토리
3	죽음을철학하는시간(죽음명상)	이일야	불교신문사	8	주경야선:가행정진으로재가자도성불할수있다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4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김원수 지음	청우당	9	스님의그림자:상담하는비구니의자기치유이야기	효록	운주사
5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10	눈으로듣고귀로읽는붓다의과학이야기(진화생물학과뇌과학,불교를만나다)	김성철 지음	참글세상

책세상

선종사원, 중생 부처로 만드는 '작불학교'



선불교
윤창화 지음
민족사 펴냄
2만3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선의 원류' '선불교의 모든 것'을 탐구한 책이다. 선종의 여러 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당송시대 선종사원(선원 총림)의 생활과 철학, 문화, 각종 소임과 제도와 조직, 직제, 가람 구성, 법어의 종류와 형식, 선문답의 기능과 방식, 좌선, 선원의 벌칙, 선승의 입적과 장송 의식 및 소지품 경매, 선원의 차 문화, 선종사원의 정원, 선시와 선화의 기준, 공안, 화두 등 선원총림의 생활문화 전반을 탐구하였다. 〈선불교〉는 2017년에 민족사 학술총서의 하나로 출판된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을 부분적으로 보완해 대중적인 책으로 재출간한 것이다. 이 책을 리메이크하여 출판하게 된 데에는 출판 분야에 있는 지인이 저자에게 보낸 한 통의 메일 때문이었다.

중국 중세(당송시대) 선종사원(선원 총림)은 현세 이익이나 사후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종교적 · 기복적 장소가 아니고, 선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완성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수도장이었다. 선원 총림은 미혹한 중생을 부처로 만들고, 범부를 위대한 조사로 만드는 '성불작조(成佛作祖)'의 공동체였다. 각종 제도, 생활철학, 그리고 가람 구조와 납자 지도 및 교육 시스템은 중생을 전인적 인격자, 깨달은 부처(佛)와 조사(祖師)로 만드는 성불작조에 맞춰져 있었다.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선불교의 4가지 시스템

선종사원의 납자 교육 및 지도 시스템의 목적은 '미혹한 중생을 깨달은 부처'로 만드는 데 있었다. 그 시스템은 법문과 독참(獨參, 개별적인 지도), 청익(請益, 보충 교육), 좌선(坐禪) 이렇게 네 가지였다. 상당 법어 등 법문은 깨달음, 반야지혜를 이루게 하는 차원 높은 작불대학(作佛大學)의 선 강의이고, 독참은 방장과 납자가 1:1의 독대를 통한 개별적인 지도이다. 청익은 보충 교육이며, 좌선은 번뇌를 쉬게 하는 시간이다. 당송시대 선원에서는 상당법어는 5일에 1회(한달에 6회) 있었고, 매일 법문으로 아침 법문인 조참(朝參, 아침 8시경)과 저녁 법문인 만참(晩參)이 있었다. 적어도 한 달에 20회 이상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독참은 5일에 1회가 의무적이었다. 오늘날 한국 선원은 이 4가지 시스템 가운데 좌선만 남아 있고, 독참, 청익 시스템이 결여돼 있다. 상당법어 등 법문도 결제 · 해제 때만, 그것도 조실이나 방장이 있는 곳에만 이루어져 있다. 적어도 상당법문은 15일에는 1회는 있어야 하고, 독참을 복원시켜야 하며, 임제록 등 중요한 선어록 몇 가지는 제창(提唱)해야 한다. 반면 지나치게 '좌선 지상주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거의 10시간 가까이 앉아 있는데 당송시대에는 많아야 하루 5시간이었다. 이렇게 좌선 지상주의가 된 것은 남송 후기-원대이며 우리나라 선원은 이 시대 선이라고 할 수 있다.

달마의 발낭 속의 선,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서기 510년(양무제 1년) 보리달마(?~528)가 중국 남부 해안 도시 광저우에 도착했다. 그의 발낭(鉢囊, 바랑) 속에는 선(禪)이 들어 있었다. 선불교의 대표적 공안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는 바로 '그 발낭 속의 선을 내놓으라'는 뜻이다. 이는 곧 '부처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말로, 참선 수행자들의 영원한 탐구 주제, 과제가 되었다. 벽안의 보리달마로부터 첫발을 내디딘 선불교가 의젓한 하나의 교단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것은 그로부터(달마 중국) 약 140년 후인 사조도신(四祖道信, 580~651)과 오조홍인(五祖弘忍, 602~675)의 동산 교단 때부터다. 이어 낙양과 장안의 대법주(大法主)인 대통신수(大通神秀, 606~706)의 눈부신 활약으로 선불교는 정치와 종교의 중앙 무대인 장안과 낙양까지 진출한다.

선종은 '더부살이, 셋방살이 신세'

그러나 신흥불교인 선종은 아직 당(唐) 초기 중국의 8대 불교 종파의 대열에는 끼지 못했다. 선종은 화엄종 · 천태종 · 율종 등에 비해 토착화 과정이 얼마 되지 않았고, 교단의 기반도 일천하여 그 세력은 계절풍 · 지역풍을 벗어나지 못했다. 몇 곳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독립적인 수행 공간, 독자적인 선종사원이 없는 무주택 상태였다. 선승들은 대부분 율종 사원에서 건물 하나를 빌려서 생활하는 이른바 '더부살이 신세' '셋방살이 신세' 또는 혼자 암자에서 독거(獨居)하는 '독살이 신세'였다.

선종의 독립운동 전개

그러나 율종과 선불교는 목적과 지향하는 바, 그리고 수행 방법과 생활방식 등에서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다. 율종은 불상과 경전을 신성시했고 율장을 강독 · 탐구하며, 계율을 준수 · 실천하는 것이 수행 방법이었다.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이었다. 그러나 선불교는 불상이나 경전은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대신 선은 '불립문자 · 교외별전, 즉 경전 외에 별도로 전한 진수로서, 곧 자신의 마음을 직시하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선은 율종을 비롯해 여타 종파에서 중시하고 있는 불상과 경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깨달음의 첩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불상과 경전을 무시하기도 했다. 또 선불교는 직관적 · 비논리적이었다. 한 지붕 두 가족, 이질적인 두 종파의 동거였다.

선불교는 제도 · 법식 · 수행 방법 등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 그들은 선종에 맞는 각종 제도와 생활 방법 등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나 율종 사원에 의탁해 있는 입장으로서 율종 사원의 제도와 규칙과 법식 등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환경적으로 의존, 종속관계였고, 종속관계는 해탈, 속박에서 벗어난 무위진인(無位眞人)이 아니었다. 조사선의 완성자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78), 그리고 그 정통을 잇고 있는 제자 백장회해(百丈懷海) 시대에 이르러 이 문제는 한층 표면화되었다. 이제 선종의 독립, 율종 사원에서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등장했다. 이는 조사선의 완성과 더불어 선승들이 자주성과 주체의식이 강화된 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결제법회 후 스님이 무문관의 문을 닫고 있다.

'선의 원류'와 '선불교의 모든 것' 탐구
선불교, 독립된 선찰(禪刹)이 필요해
중국 최초의 선원총림은 백장사이다
사조와 오조 교단부터 선불교에 주목

선종 독립 기치든 백장회해

선종의 독립, 그 역사적인 사명을 가슴에 안고 홀로 붉은 노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단소독보(붉은 노을 속을 혼자 가다)의 노선승(老禪僧)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의 선승 백장회해(百丈懷海, 720~814)이다. 그는 64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황벽희운(黃檗希運, ?~850) 등 제자들과 함께 당차게 율종 사원으로부터 독립해 대웅산 백장사를 창건했다. 이것이 선불교 최초의 선종사원이다. 또 그는 생활철학으로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굶어야 한다)을 강조했다. 직접 경작(耕作) 즉 노동에 의한 자급자족의 생활철학이었다. 동시에 그는 선종사원의 법전(法典)인 '백장청규(百丈淸規)'를 제정했다. 세칭 그를 가리켜 '선종의 건설자' 또는 '총림(선종 사원)의 문을 연 백장대지선사(叢林開闢 百丈大智禪師)'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선불교가 율종사원으로부터 독립하려던 이유는?

선불교가 율종 사원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율종의 수행 방법과 생활방식, 규칙, 그리고 설법 내용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선불교의 목적, 이상과는 상당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어느 종파가 더 옳다거나 부족하다고 말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율장을 탐구하는 율종과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주장하는 선종과는 그 방법론이 달랐기 때문이다.

선불교의 수행 방법과 목적은 직지인심을 통하여 중생을 부처로 만들고 범부를 조사로 만드는 성불작조(成佛作祖)에 있었다. 그리고 종교적 · 기복적 역할을 도외시했다. 반면 율종은 율장(律藏) 탐구가 주된 공부 방법이었고 지계(持戒)가 곧 수행의 척도였다. 계율, 규범을 중시하는 율종과 고정관념을 부정하는 선불교는 사상적인 괴리가 심했다. 선불교는 그들의 이상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생활공간 즉 독립된 선찰(禪刹)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생활방식, 보청법

선불교가 율종 사원의 울타리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스스로 온실을 박차고 노천(露天)으로 뛰쳐나오는 격이나 다를 바 없었다. 많은 대중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구조에서 의식주 문제 등 생활경제는 가장 큰 난제였다. 당시 중국불교의 사찰과 종파는 대부분 황실이나 권력자, 지방 절도사 등 경제력이 큰 재가불자 의존도가 높았다. 한 사찰을 유지 · 운영하자면 큰 후원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장회해는 권력자들의 후원을 거부하고, 그 대안으로 보청법(普請法, 노동 · 울력)을 제정했다. 수행자 모두가 직접적인 생산 노동, 즉 경작을 통하여 총림의 생활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유인이란 예나 지금이나 관념 속의 이상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왜 꼰대 시대인 당송시대 선원을 탐구했나?

지금 한국 선불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기준치는 '선의 원류' '선의 황금시대'라고 할 수 있는 당송시대의 선이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한국 선불교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알 수 있다. 짝퉁을 알려면 진짜를 알아야 하고 진짜를 모르고는 짝퉁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원류, 뿌리를 모르고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뿌리, 원류에 대한 고찰,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원류로 복귀,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책을 통해 오늘날 한국 선의 문제점이 당송시대로 돌아가 깨끗하고 개악(改惡)이 없는 '한국 선의 황금시대'로 돌아갔으면 한다.

▲저자 윤창화는?

해인사 강원(13회)과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졸업(1999) 등을 졸업했다. 논문으로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한암 선사의 서간문 고찰〉 〈무자화두 십종병에 대한 고찰〉 〈경허의 지음자 한암〉 〈성철스님의 오매일여론 비판〉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 등이 있고, 저서로는 〈왕초보, 선(禪) 박사 되다〉 〈근현대 한국불교명저 58선〉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2017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불자 생활 백서〉 등이 있다. 현재는 민족사 대표로 있다.

